

꿈 없는 자들을 위한 공유사회의 꿈: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 명 호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이 글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한 대위법적 읽기를 시도한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주창한 대위법적 읽기란 특정 작품 속에 들어있는 잠재성이 시간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 경계를 가로질러 현재에 말을 걸게 하는 독법을 말한다. 이 글은 현재의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2011년 점령운동 당시 활동가들이 내놓은 『유토피아』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검토한다. 당시 점령운동 반대론자들은 이 운동이 기존 유토피아 서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문제점을 작중인물 히슬로다에우스와 그가 2부에서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의 형상에서 찾고 있다. 반면, 점령운동 옹호론자들은 모어의 텍스트를 긍정적으로 읽어내고 있지만, 이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 역시 유토피아 사회의 구체적 모습이 그려진 2부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고 있는 1부이다. 이들은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회비평가 히슬로다에우스를 복원하고자 한다. 이 글은 점령운동 반대론자들 뿐 아니라 옹호론자들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는 2부 유토피아 상상의 급진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2부는 1부 후반부에서 전개되는 부분적 유토피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존 질서의 모순을 해소한 총체적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그리고 있다. 이 가능성은 ‘없음’(nothingness)에서 발견된다. 유토피아에서 왕은 존재한다고 묘사되고 있지만 그가 거주할 공간은 ‘없음’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은 도시를 구성하는 구역의 중앙에 존재한다고 말해지지만 실상 그 공간 역시 ‘없다.’ 담론과 실제 공간지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불일치가 루이 마랭이

유토피아서사의 특징으로 제시한 ‘중성화’(neutralization)를 만들어낸다. 중성화는 텍스트의 이념적 모순이 해소되는 계기이다. 텍스트에 존재하는 이 중성화의 계기가 기존질서에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가능성, 근대 주권권력과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선 공유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꿈을 열어놓는다. 이 꿈은 우리 시대에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소환될 수 있다.

주제어 :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점령운동, 중성화, 공유제, 못 없는 자

1.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점령운동’

토머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는 새로운 어휘와 장르의 창시자이다. 그는 대안사회를 그린 자신의 책 제목을 ‘유토피아’(utopia)로 붙임으로써 근대 담론공간에 이 말을 최초로 도입했을 뿐 아니라 ‘유토피아 서사’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 새로운 언어와 장르의 기원을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언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용을 통해 변화하며, 장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까닭에 새로운 말과 장르의 출현을 역사상 실존하는 어느 한 개인에게 소급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토머스 모어는 창시자의 위치에 올라섰고, 그가 쓴 『유토피아』는 새로운 장르의 기원 텍스트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문학사에서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우리가 유토피아 문학을 논의하면서 토머스 모어의 이름을 생략할 수 없고, 그가 1516년 라틴어로 쓴 이 자그마한 책자로 거듭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기원으로서의 위상이 『유토피아』를 읽어야 할 이유의 전부라면 문학사적 의미 이상을 갖기는 힘들 것이다. 이 작품이 살아있는 고전의 위상을 지니려면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여전히 사유를 촉발하는 문제적 텍스트로 남아있어야 한다. 문제적 텍스트란 어떤 이념적 왜곡이나 모순도 없는 완벽한 작품을 뜻하지 않으며, 자신이 속해있던 순간의 전망에서 벗어나 초월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도 아니다. 무릇 고전이란 당대의 맥락에 묶여 있는 역사적 산물이지만, “시대의 제약으로부터 달아나고 그에 맞서는 대칭적 충동을 통해 현재를 비추는 잠재성”¹⁾을 지니고 있는 작

품이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대위법적 읽기’(contrapunctual reading)라 부르는 것은 과거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이 잠재성이 시간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 경계를 가로질러 현재에 말을 걸도록 만드는 독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모어의 『유토피아』는 현재를 조망하는 해석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가? 500년 전에 출판된 이 오래된 책자가 우리 시대에도 유의미한 참조틀을 줄 수 있는가? 아니, 우리는 이 텍스트로부터 우리 시대를 읽어낼 새로운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가?

이 물음들에 긍정적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하자면, 2011년 전 미국의 ‘점령운동’(occupy movement)에서 시도된 ‘북 블록’(book bloc) 활동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점령운동은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글로벌 자본의 사유화(私有化) 경향에 맞서 이른바 ‘몫 없는 자들’이 ‘공유지’(commons)를 지키려는 싸움이었다. 이제 그 불꽃은 사그라 들었지만 선진 자본주의 국가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이 격렬한 싸움은 대안세계를 창조하려는 풀뿌리 운동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본에 맞서 일으킨 저항운동이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시위현장에서 일부 가담자들은 물리적 점령만이 아니라 ‘정신의 점령’을 시도했다고 한다.²⁾ 2011년 11월 2일 미국 오كل랜드시의 점령운동세력은 북 블록을 만들으로써 경찰과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프란츠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데이비드 하비의 『자본에 제약』, 수잔 콜린스의 『헝거 게임』, 어슐러 르 쿼의 『빼앗긴 자들』같은 책의 표지를 붙인 피켓을 들고 경찰과 맞섰다. 당시는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 가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 시위대가 만든 ‘불온서적의 방패’는 국가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물리적 보호막이자 사상의 전선이었다. 이후 발생한 사태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경찰은 북 블록의 무장해체를 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시위대가 경찰과 맞서다 80여명이 체포되기에 이른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오كل랜드 시 의회는 북 블록을 폭력의 도구로 규정하여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1) 에드워드 W. 사이드, 『프로이트와 유대인 문제』, 주은우 역, 창비, 2005, 10쪽.
 2) Sarah Hogan, “What More Means Now: Utopia, Occupy, and the Commons,”
Upstart: A Journal of English Renaissance Studies 2013. 9.2. 1-20.

보이는 데, 곧바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 국가가 개인의 사상을 금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오클랜드시의 시위현장에서 북 블록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죽은 글자들이 뻣뻣이 늘어진 책이라는 물건이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대안운동에서 살아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오클랜드시의 북 블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점령운동을 둘러싸고 벌어진 당시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가장 많이 소환된 텍스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해석되는 방식은 극히 상반된 것이었다. 점령운동을 비판하는 논자들의 관심은 ‘유토피아’에 내포된 두 가지 의미 중 하나, 즉 ‘좋은 곳’(eu-topia)이 아니라 ‘없는 곳’(ou-topia)에 집중되었다.³⁾ 이를테면 마크 휘팅튼(Mark Whittington)은 점령운동의 실패를 이렇게 진단한다.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은, 엔클레이브⁴⁾ 유토피아는 언제나 실패한다는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에 덧붙여진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⁵⁾ 그 실패의 끝은 물론 전체주의 국가이다. 이는 조지 오웰의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교훈이지만, 이상주의의 늪에 빠진 점령운동가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역사적 오류를 반복한다. 휘팅튼에게 이들은 위장된 전체주의자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없는 곳’에 집착하는 냉소적 비현실주의자들이다. 그가 보기에 이상주의와 냉소주의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을

3)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당시 글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Michael Goodwin “Lord of Flies in Zuccotti Park.” *The New York Post*. NYP Holdings, 20 Oct. 2011. Web. 4 Feb. 2012. Mark Whittington, “Occupy Wall Street Shows Why Utopias Always Fail.” *Yahoo News*, 22 Oct. 2011. Web. 4 Feb. 2012. Wallace Henley, “Occupy Wall Street, Idealism, and Original Sin.” *The Christian Post*. The Christian Post, Inc., 8 Nov. 2011. Web. 5 Feb. 2012.

4) ‘엔클레이브’(enclave)는 조차지(租借地)라는 뜻으로 프레드릭 제임슨이 현실공간 안에 존재하는 미시적 유토피아 공간을 가리키기 위해 고안한 용어이다. 의미상으로는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의 함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Fredric Jameson, “The Utopian Enclave,” *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 London & New York: Verso, 2005를 참조할 것.

5) Mark Whittington, “Occupy Wall Street Shows Why Utopias Always Fail.” *Yahoo News*, 22 Oct. 2011. Web. 4 Feb. 2012.

과격하게 바꾸려고 하지만 현실이 자신의 기준에 미달하면 냉소의 대상으로 바꾼다. 이들이 시니시즘이라는 방어막 뒤에 숨어 애써 보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들은 이상주의라는 고상한 잣대로 누추한 현실을 비판하지만 정작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 채 지적 허영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점령운동가들이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은 다소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론 다틀(Ron Dart)에게서도 발견된다. 다틀은 점령운동가들에게 나타나는 이상주의와 냉소주의의 부정적 결합양상을 모어의 『유토피아』에 등장하는 히슬로다에우스(Hythrodaeus)와 연결시키고, 그 극복 가능성을 또다른 작중 인물 ‘모어’에게서 찾는다.⁶⁾ 다틀의 해석에 의하면, 히슬로다에우스가 2부에서 묘사한 유토피아 섬은 사유재산이 없는 무계급사회이긴 하지만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모어의 『유토피아』가 뛰어난 것은 히슬로다에우스의 이상주의를 비판하는 또 다른 목소리, 작중인물 ‘모어’로 대변되는 현실주의자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모어의 『유토피아』는 유토피아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다틀은 바로 이 점을 히슬로다에우스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점령운동가들이 배워야 할 교훈으로 제시한다. 다틀은 점령운동가들이 반(反) 자본주의의 깃발을 흔들며 공원에 텐트를 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안전하게 경영할 통치술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보수적 해석과 달리 점령운동 옹호론자들은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의 이념적 근거를 끌어낸다. 이들은 16세기 영국사회에 대한 히슬로다에우스의 비판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들 자신의 비판 사이에서 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하고, 히슬로다에우스의 목소리에서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사회에 대한 열망을 읽어낸다. 이런 입장은 모어의 『유토피아』를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읽어낸 기존의 독법들, 칼 카우츠키(Karl Kautsky)에서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리처드 할펀(Richard Halpern), 크리스 켄드릭(Chris Kendrick)에 이르는 지적 전통을 잇고 있다. 이를테면, 점령운동에 동조한 초창기 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캐롤린 세일(Carolyn Sale)은 16

6) Ron Dart, “Occupy Wall Street/Vancouver and Thomas More/Erasmus.” *Clarion: Journal of Spirituality and Justice*. 31 Oct. 2011. Web. 7 Feb 2012.

세기 영국 자본주의와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의 공통성을 지적하며, 점령운동이 글로벌 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클로저에 맞서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내 생각에 점령운동은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누리고 이들이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훔친 부(富)로 멋진 삶을 사는 반면,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는 토지와 자원의 인클로저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계속하는 일이다. 이 체제 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집도, 제대로 된 음식도, 적절한 교육도, 억압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⁷⁾ (원문 강조)

흥미로운 사실은, 세일을 비롯한 점령운동 옹호론자들이 복원하는 히슬로다에우스가 유토피아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헨리 8세 치하의 영국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회비평가’라는 점이다. 이들에겐 자본의 ‘이윤 추구’를 ‘절도행위’로 읽어내는 히슬로다에우스의 반자본주의적 시각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제시하는 이상사회의 구체적 모습이 아니다. 이들은 당대 영국사회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유토피아』의 1부에 주목한다. 이상사회의 구체적 면모가 그려진 2부는 이들의 관심대상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해석은 반유토피아적 독법과 완전한 대척점에 있지 않다. 이들 역시 히슬로다에우스가 제시하는 이상사회의 그림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히슬로다에우스가 “부자들의 음모”라고 불렀던 것과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의 ‘탐욕’은 동일한 것이며, 자본주의적 착취의 긴 역사에서 거리로 내몰린 99%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히슬로다에우스와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히슬로다에우스가 지상에 ‘없는 곳’이라는 허구적 상상을 통해 제시한 유토피아 전망은 그의 21세기 후예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점령운동의 슬로건 중 하나였던 “나는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점령을 찾았다”(I lost my job but found an occupation)는 ‘사유지’를 ‘공유지’로 바꿔내는 ‘점령’

7) Carolyn Sage, “Organizing Thought 11: Join Us, the Bottom-lining Idealists!!” *Labonneviveuse, Wordpress*, 28 Nov. 2011. Web.7 2012.

에서 다른 사회를 향한 유토피아적 갈망을 드러내지만 그 갈망은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21세기 히슬로다에우스는 유토피아 전통에 대해 착잡한 태도를 갖고 있다.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등장과 그 역사적 몰락을 목격한 이들에게 공산사회는 아무 유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 될 수 없다. ‘유토피아주의=전체주의’의 등식이 신좌파와 다양한 포스트주의자들의 상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근대 계몽 이성애 입각한 사회개조 프로젝트는 극복의 대상이지 계승해야 할 전통은 아니라는 것이 서구 지식계의 묵시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존질서를 넘어설 다른 사회에 대한 지향을 포기할 수도 없다. 유토피아 지향이 포기될 때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는 현실추수주의에 굴복한 채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일만 남기 때문이다. 현실 적응과 청사진 유토피아주의(blueprint utopianism)라는 두 함정을 피하면서 유토피아 사유의 긍정적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프레드릭 제임슨과 러셀 자코비는 근자에 서구 지식계에서 이런 시도를 한 대표적 이론가들이다. 반유토피아주의라는 시대적 대세에 맞서 이들은 각각 “반반(反反)유토피아주의”(anti-anti utopianism)⁸⁾와 “우상파괴적 유토피아주의”(iconoclastic utopianism)⁹⁾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논의의 편차는 있지만 이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은 유토피아주의에 내재된 전체주의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자본주의의 급진적 안티테제로서 유토피아 사유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현실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은 ‘주어진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개방함으로써 현실을 ‘교란’하고 ‘재배치’할 수 있게 한다. 이들에게 유토피아 사유의 의의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을 드러내고 그 경색상태를 교란시키는 데 있다.¹⁰⁾ 이 ‘재배치’와 ‘교란’의 효용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 유토피아 상상은 시급히 복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유토피아는 반유토피아주의에 반대하는 ‘이중부정’(반반유토피아주의)이나 완전한 사회라는 환상을 허물어뜨리고 불완전한 미

8) Jameson, *Archaeologies of the Future*, xvi.

9) Russel Jacoby, *Picture Imperfect: Utopian Thought for an Anti-Utopian Age*, New York: Columbia UP, 2005. p. 85

10) Jameson, *Archaeologies of the Future*, p. 228.

래를 받아들이는 ‘우상과괴’의 형태로 표현될 뿐 사회변화를 이끄는 적극적 가능성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서구 진보진영이 유토피아에 대해 보이는 이런 모호한 태도는 점령운동 활동가들이 부딪쳤던 현실적 딜레마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 운동이 추구했던 “대표자 없는 운동”, “요구 없는 운동”, “목표 없는 운동”은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자율과 연대의 장을 구성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운동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장애가 되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는 슬로건은 운동의 급진성을 압축하는 수사로는 더없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변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당시 운동의 와중에서 마르크 드제리스(Marco Deseriis)와 조디 딘(Jodi Dean)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불만의 공동체’를 ‘목표의 공동체’로, ‘비판의 공동체’를 ‘비전의 공동체’로 바꾸지 않는 한 운동의 불꽃은 오래 타오르지 않는다.¹¹⁾ 점령운동은 그 성격상 공유지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전망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이었다. 프로그래밍된 운동에 대한 좌파의 불안이 대안사회에 대한 적극적 상상과 기획을 가로막은 것으로 보인다. 점령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던 활동가이자 이론가인 드제리스와 딘이, 이 운동이 소강국면에 접어들 무렵 뒤늦게 공유경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운동의 지속적 동력과 대중 동원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안 없는 비판, 목표 없는 저항은 격렬한 수사와 아름다운 도덕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 어렵다. 2011년 전 세계를 달구었던 점령운동의 뜨거운 열기는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불꽃이 완전히 꺼졌다고 말하는 것도 성급하다. 공유경제를 향한 시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점령운동의 부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시 활동가들이 애써 피했던 『유토피아』의 2부를 새롭게 읽어야 하고, 유토피아 전통과의 대면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현존질서와

11) Marco Deseriis and Jodi Dean, “A Movement without Demands?” *Possible Futures: A Project of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January 3, 2012. Web. 7 Feb 2012. 참조.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과 적극적 만남을 피하지 않을 때 운동의 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모어의 『유토피아』는 새로운 해석과 창조적 변용을 기다리는 현재 진행형의 텍스트이다.

II. 현실비판과 대안상상

토머스 모어는 1515년 영국 국왕 헨리 8세로부터 외교임무를 부여받아 플라드르의 안트베르펜에 파견되었던 짧은 기간 동안 『유토피아』를 썼다. 원래 그의 구상은 그와 지적 교분이 있던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에 대응하는 “지혜에 관한 논설”을 쓰는 것이었지만, 애초의 계획을 바꾸어 당시 유행하던 여행기 형식의 픽션을 썼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상사회를 그린 2부이다. 이 2부에 1부를 추가하여 현재 모양으로 만든 것이 『유토피아』이다. 1부는 플라톤식 대화에 풍자요소가 가미된 극적 구성 형식을 취하고 있고, 2부는 먼 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곳을 소개하는 여행기 형식이다. 1부는 토마스 모어, 페터 힐레스,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 세 사람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화를 주도하는 이는 히슬로다에우스이다. 2부는 “정치공동체의 최선의 상태에 대한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의 논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논설’(discourse) 형식인 만큼 대화 대신 화자 히슬로다에우스가 가상의 섬나라 ‘유토피아’에 대해 설명하는 독백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히슬로다에우스의 긴 이야기가 끝난 후 ‘작중 인물’ 모어의 짧은 논평이 추가되어 있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형식적으로는 철학적 대화와 여행기의 조합으로, 내용적으로는 당대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과 대안사회에 대한 급진적 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와 ‘독백’, ‘역사성’과 ‘허구성’, ‘현실주의적 비판’과 ‘급진주의적 상상’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토피아』의 형식적, 내용적 특징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중적 측면이 엇갈린 해석을 낳는 요인이 된다. 앞서 점령운동의 찬반론자들이 이 작품에 대해 내놓은 상반된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모어의 『유토피아』는 유토피아 문

학의 기원이면서 동시에 반유토피아 문학의 원형으로, 또 대안사회에 대한 이상주의적 열정을 표현하면서 그 열정으로부터 아이러니한 거리를 유지하는 텍스트로 해석된다. 전자가 현실을 뛰어넘는 유토피아 상상의 의의를 옹호하는 급진주의적 해석이라면, 후자는 유토피아 상상의 위험을 경고하고 그 한계를 비판하는 현실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해석을 따를 경우 유토피아 상상이란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헛된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유토피아란 화자 히슬로다에우스의 이름이 가리키듯 풍자의 대상이다. (라틴어로 ‘Hythlodæus’는 그리스어의 ‘huthlos’(난센스)와 ‘daien’(나누어주다)의 합성어로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이란 뜻이다.) 히슬로다에우스가 설파하는 유토피아는 그 이름처럼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몽상에 불과하다. 거칠게 말해 이 두 대립되는 해석이 『유토피아』 비평사를 관통해왔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는 텍스트 자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토피아』는 작중 인물의 층위에서는 이상주의적인 히슬로다에우스와 현실주의적 모어가, 서사의 수위에서는 급진적 상상과 현실 풍자가, 이념의 측면에서는 화폐와 사유재산이 철폐된 공산사회에 대한 지향과 그것이 지닌 전체주의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동거한다. 이 불안한 동거가 『유토피아』를 분열적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요인이면서, 이후 비평적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는 점령운동 당시 이 작품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서도 반복된다.

그렇다면 모어는 왜 두 이질적 서사를 병치시켰는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 『유토피아』의 2부에 활용된 여행기는 낯선 세계를 방문한 자의 시선으로 익숙한 질서와 그 가치체계를 교란시키는 데 적합한 형식이다. 유토피아 장르의 본질이 ‘인식적 낯설게 하기’(cognitive estrangement)에 있다는 다크 수빈(Darko Suvin)의 주장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기원서사’로서 이 장르가 지닌 교란적 특성을 말해준다.¹²⁾ 낯설게 하기가 의도하는 것은 익숙한 현실에

12) 참고로 다크 수빈은 하나의 장르로서 유토피아 서사를 이렇게 정의한다. “사회정치제도, 규범, 개인들 간의 관계가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 더 완벽한 원칙에 따라 조직되는 특정 유사인간 공동체에 대한 언어적 구성물. 이 구성물은 대안적 역사라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낯설게 하기 효과에 기초해있다. Darko Suvin, “Defining the Literary Genre of Utopia: Some Historical Semantics, Some Genealogy, a Proposal and a Plea,”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6. 2 (Fall 1973),

충격을 가함으로써 그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교란이 현실 비판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세계의 상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토피아 장르의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른 세계를 향한 유토피아 상상—프레드릭 제임슨이 ‘인식적 지도그리기’(cognitive mapping)라 부른 대안 상상—이 여행자의 입을 빌어 서술되고 있는 『유토피아』의 2부가 이 텍스트의 중심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부는 1부를 탈구(脫臼)시킨다. 허구적 상상이 현실을 뒤흔들어 우리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불완전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토머스 모어는 현실에서 물러나 학문에만 전념했던 인물이 아니다. 그는 헨리 7세(1457~1509) 때는 법률가, 런던 시 사정 장관보, 하원 의원을 역임했고, 헨리 8세(1491~1547) 때는 대법관직을 맡았으며, 『유토피아』를 쓸 무렵에는 잉글랜드와 카스티야 사이에 벌어진 양모 수입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헨리 8세의 명을 받아 플랑드르에 대사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모어는 이처럼 당대 최고위직을 두루 섭렵했으면서도 결국 헨리 8세의 이혼과 수도원 폐쇄령에 반대하다가 처형당하는 비극적 말로를 맞이했다. 그는 가톨릭의 종교적 이상을 세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이상 국가를 설계하고, 그 이상이 국가권력에 의해 훼손될 때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 지식인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개혁집단으로 올라서서 후일 안토니오 그람시가 ‘유기적 지식인’이라 부른 역할을 수행하던 시기에, 지식인들의 대화와 토론은 단순한 지적 유희나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실천이었다. 실제로 모어는 국경을 넘어 홀란드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지적 대화를 나누어왔다. 앞서 지적했듯이 『유토피아』는 원래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에 대한 응답으로 기획되었다. 중세 신권질서에서 근대 인간중심 질서로, 종교권력에서 세속권력으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역사의 거대한 파도가 바뀌던 시절, 유럽의 휴머니스트 지식인들은 지적 실천에서 사회변화의 단초를 찾고자 했다.

유토피아 사회에 대한 급진적 상상을 담고 있는 2부는 역사적 위기를 사유

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고안된 형식이다. 그것은 현존질서의 부분적 개선이나 개량이 아닌 총체적 재구성을 시도하는 형식으로서 그 자체 진지한 사회정치적 기획을 담고 있다. 『유토피아』의 1부는 히슬로다에우스가 당시 유럽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가상의 세 나라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가 묘사하는 아코리아, 마카리아, 폴릴레리트는 각기 군주의 군사적 정복욕을 제한하고, 재정적 탐욕을 통제하며, 도둑을 사형시키지 않고 자비롭게 대하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적 개혁이 사회문제를 푸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를테면, 군주의 정복욕이나 재정적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 신하들이 군주를 설득하거나 과도한 조세징수를 막는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군주의 탐욕을 억제하려면 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왕정질서를 넘어서는 정치체제를 요구한다. 또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절도범에게 사형 대신 공공사업이나 노동봉사를 시킬 수는 있지만, 민중들을 도둑질로 내모는 요인이 존속하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칼 카우츠키를 위시한 유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공산주의의 원조로 읽어낸 히슬로다에우스의 발언은 절도와 사형제도라는 사회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도 사회의 총체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설파한다. 영국에 왜 도둑질이 창궐하게 되었느냐는 추기경의 질문에 히슬로다에우스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들 나라의 양입니다. 양들은 언제나 온순하고 아주 적게 먹는 동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들이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난폭해져서 사람들까지 잡아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양들은 논과 집, 마을까지 황폐화시킵니다. 아주 부드럽고 비싼 양모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대귀족과 하급 귀족, 심지어는 성무를 맡아야 하는 성직자들까지 옛날에 조상들이 받던 지대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 아무런 좋은 일도 하지 않고 나태와 사치 속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듯이 이제는 더 적극적인 악행을 저지릅니다. 모든 땅을 자유롭게 경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목축을 위해 울타리를 쳐서 막습니다. 이들은 집과 마을을 파괴해 버리고 다만 양 우리로 쓰기 위해 교회만 남겨 놓습니다. 이미 많은 땅을 방목지와 사냥용 짐승 보호지로 만들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

높은 분들은 주거지와 경작지마저 황폐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만족을 모르고 탐욕을 부리는 한 사람이 수천 에이커를 울타리로 둘러막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나라에 역병 같은 존재입니다. 소작농들은 쫓겨나든지 속임수, 강짜 내지는 끊임없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 얼마 안되는 돈마저 다 날리면 결국 도둑질 끝에 당신 말대로 교수대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유랑하며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¹³⁾

‘인클로저’(enclosure)라 불리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경제 운용방식이 농민들을 농토에서 쫓아내고, 가난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유랑생활 끝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절도범을 엄벌하는 것으로 범죄를 없앨 수는 없다. 절도범을 사형시켜 사회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은 “피상적으로는 정의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과도 없습니다”(30쪽). 이는 공안통치를 통한 공포정치일 뿐이다. 1부의 후반부에 히슬로다에우스가 작중 인물 모어에게 밝히고 있듯이,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의 척도로 남아 있는 한, 어떤 나라든 정의롭게 또 행복하게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최악의 시민들 수중에 있는 한 정의는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한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는 불안해하고 다수는 완전히 비참하게 살기 때문입니다”(55쪽). 사회정의와 국민의 행복을 가져올 근원적 해결책은 사유재산의 철폐이다. 히슬로다에우스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한 재화의 균등분배도 사유재산의 철폐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유재산의 철폐를 이룩한 이상사회의 모습은 2부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핵이다. 유토피아 섬의 가장 큰 특징은 화폐와 사유재산이 없는 것이다. 이는 현존 질서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상상이다. 『유토피아』의 1부는 2부의 급진적 상상이 함축하고

13) Thomas More, *Utopia*. Tr. & Ed. Robert M. Adams. New York & London: W. W. Norton Company, 1992, p.12. 번역은 주경철 역 국역본을 따랐다.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주경철 역, 을유문화사, 2007, 27-8쪽. 이하 이 책에서의 인용은 본문에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있는 전복성에 현실적 맥락을 부여하면서 부분적 유토피아의 한계를 드러낸다. 1부는 히슬로다에우스가 2부에서 그리고 있는 이상사회로부터 비판적 거리두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분적 유토피아의 불충분함을 드러냄으로써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2부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당대 사회의 주요 모순이자 쟁점인 사형제도와 경제적 착취, 절대군주의 비대한 권력에 대해 복수의 의견들이 경합을 벌이는 1부가 추가됨으로써 2부의 논의는 ‘허황된 몽상’(pipe dream)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진지한 대응을 담고 있는 ‘사회적 상상’(social dreaming)이 된다. 이 상상은 현존 질서의 국지적 개선과 개량을 넘어 그것과 급진적 단절을 시도하는 혁명적 사회기획으로서의 위상을 얻는다.

Ⅲ. 뭉 없는 자들을 위한 공유 공간: 유토피아 형상

1부 마지막에 작중인물 ‘모어’는 히슬로다에우스에게 유토피아 섬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2부는 ‘모어’의 요청에 따라 히슬로다에우스가 유토피아 섬의 지형과 도시설계, 정치조직, 사회구조, 경제체제, 가족구성, 종교와 철학 등 한 사회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지적 설계이자 한 나라의 근간을 정초하는 ‘헌법적 행위’(constitutional act)에 해당한다. 모어의 유토피아 상상이 ‘근대적’ 기획으로 이해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사회질서가 신의 뜻에 따라 정해졌다는 중세적 세계관을 따르는 한 이런 종류의 디자인은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의 질서가 인간에 의해 형성되고 인간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근대 휴머니즘 사상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만 출현할 수 있다.

히슬로다에우스가 그리는 유토피아의 모습은 1부에서 드러난 당대 현실의 모순과 병폐가 급진적으로 해소된 사회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해소방식의 독특성에 있다. 이는 유토피아 섬의 유래와 지리적 위치, 그리고 명명방식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히슬로다에우스의 설명에 따르면 유토피아는 원래 대륙

에 붙은 ‘곶’이었는데, 이곳에 처음 도착한 유토푸스(Utopus)왕이 해협을 파 본토에서 떼어내 ‘섬’으로 만들었다. 섬은 육지에서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본토의 영향에서 벗어나있다. 이 고립성이 유토피아 섬을 현존 사회의 모순에서 벗어난 예외적 공간, 사회의 총체적 변화가 시도되는 혁명의 공간으로 만든다. 또 유토피아 섬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 실론 섬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지리상의 발견과 식민지 개척으로 특징지어지는 당시 서양의 지정학적 세계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토피아섬은 이런 현실 공간 ‘너머’ 혹은 그 ‘바깥’에 위치해 있다. 유토피아섬이 놓여 있는 ‘사이’란 양 극의 ‘중간’(middle)이라기보다는 양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장소’(non-place)이다. 유토피아는 신대륙도 구대륙도 아니며, 동양도 서양도 아니다.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말 그대로 ‘노웨어’(nowhere)이다.

『유토피아』 해석사에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수아 마랭 루이 마랭(Louis Marin)에 따르면, ‘이중부정’(double negation)에서 비롯되는 ‘중성화’(neutralization)가 유토피아를 구성하는 원리이다.¹⁴⁾ 긍정과 부정이 아닌 삼 항으로서 ‘중성’은 양성의 대립이 이른바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 대립 자체가 ‘중성화’된 상태를 말한다. ‘중성화’와 ‘해결’(resolution)은 같지 않다. 해결이 변증법적 종합을 통한 모순의 ‘지양’이라면, 중성화는 ‘부정의 부정’을 통한 모순의 ‘해소’(cancellation)이다. 마랭에 따르면, 신화(myth)가 모순의 해결을 지향하는 담론양식이라면 유토피아 서사는 상호 충돌하는 모순들이 중성의 공간을 개방하는 담론양식이다. 부정의 부정이 외화하는 방식이 현존 공간에 불일치를 초래하는 ‘공백’과 ‘부재’이다. 따라서 현실사회의 모순이 해소된 유토피아는 아무 갈등도 모순도

14) Louis Marin, *Utopics: Spacial Play*. Tr. Robert A. Vollrath. Atlantic Highlands: Humanities, 1984, pp.7-8. 마랭에게 유토피아적 실천(utopic practice)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담론 속에 기입해 넣는 담론실천이지만, 그 공간이 특정 공간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유토피아는 재현불가능한 절대적 지평으로, 그리고 유토피아적 담론실천은 이 재현 불가능성을 텍스트 안에 부재와 틈새, 간극과 한계의 형태로 드러내는 수행적 행위(performative act)이다. 이런 점에서 마랭의 입장은 탈구조주의에 깊이 경도되어 있다.

없는, 따라서 어떤 변화도 필요 없는 완벽한 사회에 대한 정태적 그림이 아니라 기존의 모순은 해소시켰지만 또 다른 모순과 간극을 안고 있는 공간, 담론의 정상적 전제가 중단된 미결정성의 공간이다. 마랭에 의하면 유토피아는 지도에 그려 넣을 수도 역사에 기록할 수도 없는 ‘비장소’(non-place)로서 텍스트의 ‘공백’(gap)과 부재(absence)를 통해 드러난다. 이 공백과 부재가 유토피아 서사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에 내재적 비판을 가할 수 있게 해주면서, 현실에 없는 미지의 공간을 출현시킨다.¹⁵⁾

‘부재’와 ‘공백’은 유토피아의 공간구성과 정치조직, 경제운용방식, 사회관계에서 공히 발견된다.¹⁶⁾ 유토피아는 똑같이 생긴 54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도시는 구(block), 거리(street), 구역(district)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각형 모양의 ‘구’는 생산단위로서 중앙에 구민들이 공동 관리하는 농원이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2년에 한번 씩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2년의 기한이 끝나면 도시로 돌아온다. 도시와 농촌은 주기적으로 교류하게 되어 있다. ‘거리’는 소비단위이자 정치단위로서 서른 가구가 양쪽으로 도열해 있다. 이 서른 가구의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필라르쿠스(과거엔 시포그란투스라 불렸음)라 불리는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뽑힌 200여명의 필라르쿠스들이 민회를 구성한다. 주민들은 가구별로 똑같이 생긴 3층짜리 건물에 거주하고 식사는 거리 중앙에 위치한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해결한다. 집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추첨으로 결정한다. 25개의 ‘구’로 구성된 ‘구역’은 경제단위로 그 중앙에 시장이 있다. 한 도시는 이런 4개의 구역이 모여 구성된다. 각 ‘구’의 농원에서 경작한 농산물과 화훼

15) Marin, *Utopics*, p.7. 마랭에게 유토피아는 이데올로기적 재현체계를 벗어나 있는, ‘이론’(theory)의 위상을 획득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도 아니다. 마랭의 표현을 빌면 유토피아는 이데올로기의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데올로기 안에 있으면서 이데올로기를 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독특한 위상이 유토피아 담론이 기존의 언어로는 알 수 없고 아직 역사의 공간에 도래하지 않는 미지를 출현시킬 수 있게 한다. Marin, 위의 책, 9장 “Thesis on Ideology and Utopia” 참조.

16) 유토피아 섬의 공간구성을 ‘없음’과 연결시켜 읽어낸 마랭의 해석은 *Utopics* 6장 “The City: Space of Text and Space in Text”를 참조할 것. 이 부분의 해석은 마랭의 분석을 필자의 관점으로 정리한 것이다.

는 ‘구역’의 시장에 모여 ‘거리’에서 소비된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씩 어긋나 있는 이런 공간구성은 유토피아사회가 생산재를 소비재로 바꾸고, 생산자가 노동의 산물을 직접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산단위(구)는 경제단위(구역)를 통해 소비와 정치단위(거리)와 연결되어 있지만, 소비와 정치단위가 생산 및 경제단위가 완전히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마랭은 유토피아의 공간 구성에서 도시가 수행하는 핵심 기능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낸다. 놀랍게도 히슬로다에우스가 그리는 도시의 지도에서 왕의 자리와 돈의 자리는 없다. 히슬로다에우스는 유토피아에 왕과 시장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묘사하는 유토피아의 실제 공간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왕이 거주하는 공간과 시장이 존재하는 공간을 찾을 수 없다. 국가를 구성하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간구성에서는 빠져 있다. 묘사와 실제 공간지도 사이에 일어나는 이 불일치가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증상’(symptom)을 발생시킨다. 해석의 과제는 이 증상을 읽어냄으로써 텍스트의 지하에 묻혀 있는 정치적 무의식을 복원하는 것이다.

원래 유토피아는 우토포스왕이 아브락사라 불리는 지역을 정복하여 그곳 원주민들(이들은 난파당한 그리스 후손들로 그려진다)과 이주민들을 융합하여 건설한 나라이다. 그러나 식민주의적 침략의 흔적을 지울 수 없는 이 정복 국가의 공간구성에서 왕이 거주하는 공간은 발견되지 않는다. 유토피아에서는 필라르쿠스들이 ‘원수’(princeps)를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수는 폭군이 되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직책을 종신 유지한다. 공무에 관한 중대 사항은 필라르쿠스들이 모여 만든 민회에서 토의되고 원로원에서 원수와 협의 하에 결정된다. 민회, 원로원, 선출 왕정제도가 결합된 느슨한 형태가 유토피아의 정치체도로 제시되어 있는 셈인데, 이는 당시 유럽에 부상하고 있던 절대왕정 체제와는 다른 근대 의회제도의 맹아를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유토피아에서 왕(원수)이라는 주권권력은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가 거주하는 실제공간은 보이지 않는다. 히슬로다에우스가 묘사하는 유토피아의 지리적 배치나 수도 아마우로툼의 지도에서 왕의 공간을 찾을 수는 없다. 마랭의 용어를 빌자면, 왕은 그 공간이 ‘없는’ ‘유토피

대상'(u-topic object)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토피스왕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절대 권력이며 그의 뒤를 이은 원수들은 왕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후일 근대 정치질서의 출현을 예견하는 '사라지는 매개자'(vanishing mediator)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유토피아』가 출간되고 125년 뒤 영국은 찰스 1세를 폐위시킴으로써 왕의 자리를 없애는 데 성공한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왕에게 공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정'의 방식으로 왕의 '사라짐'을 선취하고 있다.

유토피아의 지형도에서 장소가 없기는 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히슬로다에우스의 묘사에 따르면, 시장은 각 구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25개의 구가 모여 이루어지는 구역의 공간지도 상 그 중앙에 시장이 존재할 공간은 없다.¹⁷⁾ 구역 자체가 장방형(square)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개의 구로 구성된 중앙에 빈 공간이 생길 여지는 없다. 답론은 그 존재를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 공간지도에서 시장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마랭이 지적하듯이, '담론'(discourse)과 '지도'(map), '묘사'(description)와 '지형'(topography)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 텍스트의 간극과 불일치를 만들어낸다.

이 불일치는 작가의 부주의가 빚어낸 단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의 심층에 잠복해있는 모순이 드러나는 증상이다. 화폐의 사용을 전제하는 시장과 화폐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공산주의 이념 사이엔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 텍스트상의 불일치는 이 모순이 드러난 파열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순을 해소하는 길이 시장에서 화폐의 사용을 없애는 것이다. 유토피아에서 시장은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소비자들만 가져가는 교류의 공간이지 화폐를 통한 상업적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다. 말하자면, 시장은 각 구에서 생산한 물품을 반입하여 상품별로 정해진 자리에 보관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공간이다. “가장들은 이곳에 와서 자신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못 가져가게 할 이유가 없지요. 모든 물품이 다 풍부하고, 또 누구도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80쪽).

17) Marin, *Utopics*, pp.127-8.

유토피아에는 원칙상 돈이 없다. 화폐는 상품들 사이의 추상적, 보편적 교환의 등가물(equivalent)이다. 그러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분리되지 않은 유토피아에서 화폐는 귀중품을 표상하는 ‘금’(gold)의 ‘은유적 형상’(metaphoric figure)일 뿐 상품들 사이의 교환가치를 매개하는 추상적 기호(abstract sign)로 기능하지 않는다. 금과 은도 요강의 재료나 노예의 수갑처럼 저급한 물건에 쓰임으로써 조롱의 대상이 된다. 금과 은, 그리고 그것의 은유적 표상인 돈은 유토피아에서 사회 바깥으로 버려지는 ‘폐기물’(refuse)과 비슷하다. 유토피아의 내부질서는 ‘선물의 경제’(the economy of gift)에 기초해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자신들 끼리는 돈을 사용하는 법이 없고 단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관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만드는 금과 은을 실제 합당한 가치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을입니다”(88쪽). 유토피아에서는 돈이 없어도,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아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자의 원활한 교류와 재화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어느 한 지역에서 물품 부족사태가 발생하면 민회의 연례회의에서 채워준다. 히슬로다에우스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무상의 선물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남은 물자를 준 사람들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도시에 무상으로 물자를 주지만, 그들 역시 다른 도시로부터 무상으로 물자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섬 전체는 마치 하나의 가족 같습니다”(86쪽).¹⁸⁾

18) 물론 유토피아에서 상업적 거래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대외무역에서는 상업적 거래가 온존한다. 유토피아인들은 해외무역을 위해 돈을 유통하며 금과 은 같은 귀금속도 축적한다. 유토피아에서는 통상 2년 동안의 소비량을 비축한 후 그 이상의 잉여는 외국에 원조를 하거나 수출한다. 수출품의 7분의 1은 수입국의 빈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오늘날 부유한 나라들이 시행하는 무상 해외원조의 씨앗이 유토피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또 유토피아인들은 외국과 거래를 할 때 돈의 결제를 곧바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나라에 돈을 대부해주어야 하는 경우, 혹은 전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거액을 준비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같이 극도의 위험이나 급박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유토피아』 87쪽). 이런 대목을 보면, 유토피아가 생산, 분배 및 교환관계에서 국내와 국외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시장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토피아 사회에서 사람들의 기본 욕구의 충족과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유토피아에는 굶주리거나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노동을 해야 하지만 누구도 궁핍에 내몰리지 않는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가 유토피아의 기본 경제시스템이다. 일부 성직자나 학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1일 6시간의 노동에 종사한다. 시민들은 노예처럼 일만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시민들은 평등하게 노동을 나누는 대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와 쾌락을 보장받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덕을 쌓는 데 쓴다. 이곳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정신적 쾌락이다. 천박한 오락과 육체적 방종, 사치는 금기시된다. 음악과 책읽기는 즐기지만 술집과 매음굴, 노름과 도박은 없다. 유토피아인들은 일부일처제로 구성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 하에서 살며 간통과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간통이나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합의 이혼할 수 있으며, 각자 재혼도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연 그대로의 색깔을 간직한 검소한 옷을 입고, 똑같은 구조의 소박한 집에서 산다. 기독교가 기본 종교로 되어 있지만 종교 권력과 세속권력은 분리되어 있으며 (무신론이 아니라면) 종교적 자유는 보장받는다.

히슬로다에우스가 묘사하는 유토피아사회의 구체적 모습은 결혼과 이혼 등 가족제도를 제외하면 중세 수도원을 연상시킨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와 공정성이 우선시되며, 검약과 도덕적 삶이 장려되는 공동체는 다른 어느 곳보다 수도원을 닮아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에 따르면, 모어에게 유토피아 형상 (figure)¹⁹⁾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16세기 유럽 지식인들을 사로잡았

돈을 없앴지만, 국외관계에서는 유지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외국인을 용병으로 삼고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의 안전을 위해 위협하거나 부도덕한 일은 국외로 전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하거나 약한 나라를 체계적으로 착취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외관계에서 유토피아가 서구 근대 제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상 그 원형적 형태를 보여준다는 탈식민주의자들의 비판은 틀리지 않다. 탈식민주의적 비판의 대표적 저술로는 Jeffrey Knapp, *An Empire Nowhere: England, America, and Literature from Utopia to The Tempes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을 참조할 것.

19) ‘형상’(figure)과 형상화(figuration)는 앞서 언급한 프랑스 이론가 루이 마랭이

던 네 가지 이념소의 만화경적 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스 휴머니즘(그리스의 폴리스), 프로테스탄티즘(교회권력을 부인하고 개인의 믿음에 기초한 신자들의 공동체), 중세 기독교 공동체(수도원), 잉카담론(잉카제국의 국가 공산제)은 모어가 창조한 유토피아 형상을 구성하는 원재료이다.²⁰⁾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경제적 토대로 삼고 있는 중세 수도원은 당시 유럽 지식인들에게 전해졌던 잉카제국의 토지공유제도(ejido)와 결합하여 유토피아의 경제적 하부구조를 구성한다. 이 구조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당시 부상하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넘어 미래의 공산주의를 선취하고 있다. 그리스 휴머니즘에서 발견되는 민주적 정치체제와 종교개혁을 사회변화의 도구로 삼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지식인(철학자와 목회자)을 공공영역의 전위로 삼는 상부구조를 형성한다. 가톨릭 휴머니스트였던 모어는 프로테스탄티즘의 교리와 충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모어는 루터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수도원 폐쇄를 명령하는 헨리 8세의 수장령에 맞서다 처형당한다), 교회권력을 비판하고 원시 기독교정신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다는 면에서는 동시대 신교도들과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었다.

물론 이 네 이념소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단적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는 수도원과 개인의 내면성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잉카의 전제 군주국가와 근대적 형태의 민회 사이엔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전자(수도원과 잉카제국)가 전근대적이라면 후자(프로테스탄티즘과 민주적 정치형태)는 근대적이다. 따라서 간극과 불일치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불일치가 앞서 마랭이 지적한 현존 질서의 모순이 해소되는 중성화의 계기를 만든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 형상은 이 네 이념소를 조합한 것인데, 각각의 이념들은 서로 조금씩 어긋나면서

소개한 개념이다. 마랭에 따르면 하나의 장르로서 서사 유토피아(narrative utopia)는 유토피아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는 ‘이론’의 영역이다-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前)개념적 재현양식, 과정 중의 역사에 대한 서사적 그림(narrative picture)을 제시한다고 한다. ‘말하는 그림’(speaking picture)의 형태를 취하는 까닭에 이는 형상화(figuration)로 불릴 수 있다. 마랭은 이 형상화를 ‘도식’(schema)을 만들어내는 칸트의 상상력 개념과 연결시킨다. Marin, *Utopics*, p.163.

20) Fredric Jameson, *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5. pp.23-33.

하나의 전체적 형상을 이루고 있다. 제임슨의 평가를 빌자면, 유토피아의 2권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가장 미미한 긍정적 신호를 찾아내어 결합시킨 다음 ‘재현의 그림’이라 부를만한 것을 생산한 것”²¹⁾이다. 히슬로다에우스가 그린 유토피아 형상 속에서 낡은 제도들은 현존질서의 모순을 해소하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질료로 쓰이고 있다.

모어가 상상한 유토피아 형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것은 당시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던 자본주의질서를 넘어선 공유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이 체제를 구성하는 세부 사항은 작품이 뿌리내리고 있는 당대의 역사적 한계에 갇혀있다. 이를테면,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사회는 가부장적이고, 서구적이며, 기독교 중심적이다. 또 만인의 평등, 공정한 분배, 공공복리(common wealth)에 기초한 공화국(commonwealth)을 지향하면서도 노예의 존재를 인정한다.²²⁾ 유토피아는 평등한 시민들의 도덕공동체가 되기 위해 도축 같은 더러운 일이나 외국과의 전쟁 같은 위험한 일은 노예나 용병을 씌으로써 국가의 유지에 필요하지만 처치 곤란한 문제는 내외부의 타자들에게 전가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토피아는 국내에서는 폐기한 화폐와 금전적 거래를 국외관계에서는 유지한다. 애초 유평스왕의 정복 자체가 식민주의적 침략의 성격이 짙다. 더욱이 이 침략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토지를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언제나 재개될 수 있다. 우리가 유토피아의 대외정책에서 이후 전개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적 침탈의 징조를 읽어내기란 어렵지 않다.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위험하고 불결한 일은 외부로 추방하는 것은 한 사회가 내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가동하는 전형적 통치방식이다. 유토피아도 예외가 아니다. 필립 E. 웨그너(Phillip E. Wegner)가 주장하듯이, 모어의

21) Jameson, *Archaeologies of the Future*. p.29.

22) 유토피아에서는 노예가 되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어느 경우든 노예 신분이 세습되는 않는다. 첫 번째는 유토피아의 시민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출신으로서 자기 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이다. 이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되거나 무상으로 넘겨받는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의 빈민 출신으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유토피아에 노예로 온 경우이다. 이 세 유형 중에서 가장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첫 번째이다. 마지막 형태의 노예는 가외의 일을 조금 더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과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는다. 『유토피아』 111-2쪽.

유토피아는 그가 책을 쓸 당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부상할 근대 민족/국민국가(nation state)를 예견하거나 그와 일정정도 공모하고 있다.²³⁾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는 동질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질적 요소들을 경계 너머로 추방한다. 노예와 용병은 각기 유토피아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타자들이다. 이후 역사에서 이들은 그 계급적·인종적 얼굴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피식민지인들은 이들이 이후 역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계급적·인종적 형상이다. 이들은 서구 민족공동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비시민(non-citizen)이다. 모어 자신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는 보편적 신자공동체를 지향했고, 또 영어가 아닌 보편언어인 라틴어로 『유토피아』를 썼지만²⁴⁾, 그가 그린 상상의 공동체(유토피아)와 상상된 공동체(민족/국민국가)사이에 상당한 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특히 상상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 디테일들은 근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 놓여있다.

그러나 모어가 상상한 유토피아는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당대의 이념적 지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과 돈의 철폐라는 급진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당대 질서를 넘어선다. 제임슨의 구분을 원용하자면 모어의 유토피아는 기존 사회와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올리지적 의미에서 ‘상상력’(imagination)이 발현된 것이다. 하지만 그 사회의 구체적 모습을 그려보는 ‘공상’(fancy)의 수위에서는 기존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 있다.²⁵⁾ 사유재산과 돈의 철폐는 중세 봉건질서 뿐 아니라 당시

23) Philip E. Wegner, *Imaginary Communities: Utopia, the Nation and the Spatial Histories of Modern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2장 “Utopia and the Birth of Nation”을 참조할 것.

24) 흥미롭게도 모어는 유토피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히슬로다에우스가 유토피아인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쳐 주었을 때 채 3년도 되지 않아 완벽하게 습득했다는 언급은 있다. 히슬로다에우스는, 유토피아인들이 이렇게 빨리 그리스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유토피아인의 언어가 페르시아어와 비슷하지만 그리스어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모어, 『유토피아』, 108-9쪽.

25) Jameson, *Archeologies of Future* pp.42-56. 제임슨은 사무얼 코올리지의 ‘상상력’과 ‘공상’의 구분을 각기 프로이트의 ‘소망충족’(wish fulfillment)과 ‘소망의 이차적 가공’(secondary elaboration)과 연결시킨다. 일종의 백일몽(daydreaming)이라 할

부상하던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는 급진적 상상력이 발현된 것이다. 모어의 상상 속에서 돈의 지배는 가치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돈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것은 돈과 연관된 타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화폐와 사유재산을 없앤 공산사회의 소망은 평등과 사회정의의 실현일 뿐 아니라 인간이 도달해야 할 도덕적 이상이다. 유토피아 사회를 소개하는 긴 독백담론을 마무리하면서 히슬로다에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유토피아인들은 돈을 없앴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탐욕까지 없앤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만으로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뿌리를 잘라낸 것입니까!”(152-3쪽) 탐욕은 “최악의 질병이자 만악(萬惡)의 근원인 오만”으로 이어지는데, “오만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 자기 장점을 재려” 하기 때문에 “타인의 비참함과 대조될 때 더 화려해지고, 다른 사람의 가난을 고통스럽게 하고 애타게 함으로써 더 가치있게 된다”(153-4쪽). 돈의 지배와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지 않는 한 탐욕과 오만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화폐의 철폐와 사회적 평등은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유토피아에서 경제체제(화폐의 철폐), 사회질서(위계와 불평등의 해소), 개인의 도덕(탐욕과 오만의 극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없음’을 실현한다. 이 ‘없음’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곳’을 개방한다.

IV. 열린 결말과 유토피아의 재발명

히슬로다에우스가 유토피아에 관한 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작중 인물 ‘모

수 있는 예술창조에서 소망이 충족되는 것과 소망이 꿈텍스트에 나타나는 것 사이엔 차이가 있다. 꿈텍스트에는 소망을 감추고 위장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코울리지에게 ‘상상력’은, 신적 창조에 버금갈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근원적 능력이고 ‘공상’은 그것을 가공하는 부수적 능력이라면, 프로이트에게 소망충족은 억압된 무의식적 소망을 실현하는 일차 작업이고 꿈 작업(dream work)은 이 소망을 꿈 텍스트로 가공하는 이차작업이다. 인간에게 더 큰 쾌락을 제공하는 것은 소망충족이다. 이차가공이 주는 쾌락은 ‘인센티브 보너스(incentive bonus) 정도이다. p.47.

어'가 다시 등장한다. 모어는 그가 소개한 “유토피아의 관습과 법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이 아주 부조리하게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전체 체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과 화폐 없는 경제”에 가장 큰 반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2부 마지막에 덧붙여진 이 짧은 논평은 1부에 제시된 모어의 발언과 함께 이 작품을 반유토피아문학으로 되돌려놓는 결정적 대목으로 해석되어왔다. 1부 마지막에 작중인물 모어는 이미 히슬로다에우스가 간략하게 언급한 유토피아사회의 모습, 특히 사유재산이 폐지된 그곳의 경제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하고 내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물자가 풍부하겠습니까? 이익을 얻을 희망이 없으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려 하고 게을러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자기가 얻은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특히 통치자들에 대한 존경과 그들의 권위가 모두 사라진다면 유희와 혼란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다면 그들 사이에 어떻게 권위를 세울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58쪽)

이 구절은 2011년 점령시위 당시 이 운동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논객들이 자주 인용했던 대목이다. 히슬로다에우스의 유토피아 상상을 ‘부조리한 것’으로 치부하는 모어의 목소리는 그의 21세기 후예들의 급진적 도전을 비판하는 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부에서 지적했듯이, 2부 히슬로다에우스의 유토피아 상상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판은 점령운동 반대론자들 뿐 아니라 찬성론자들도 공유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작중인물’ 모어의 시각은 ‘저자’ 모어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저자란 역사적 실존인물인 ‘실제 작가’로 환원되지 않는 작품 속에 구현된 저자, 웨인 부스(Wayne Booth)가 내포저자(implicit author)라 부른 존재를 의미한다. 내포저자란 작품 속 특정 인물의 목소리--설령 그 인물이 저자의 실명을 공유하는 존재라 할지라도--로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시각을 가진 여러 인물들과 그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아우르면서 작품 전체를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저자를 가리킨다. 『유토피아』에서 추출할 수 있는 내포저자의 목소리는 작중 인물 히슬로다에우스와 모어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양쪽의 가능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작가는 이 두 목소리를 대화적 관계 속에 놓음으로써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위태로운 균형과 열린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작품 마지막 대목에 첨가된 작중인물 모어의 목소리는 히슬로다에우스의 이상주의적 상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유토피아에 관한 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히슬로다에우스가 상상한 유토피아는 당대 영국적 삶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정태적 사회로 그려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앞서 우리가 마랭의 분석을 통해 다시 읽어내려 한 것은 완벽한 사회의 정태적 그림처럼 보이는 것 속에 존재하는 모순과 불일치의 함의이다. 텍스트의 불일치는 현존질서의 모순이 급진적으로 해소된 공간, 이른바 현실에 ‘없는’ ‘유토피 공간’(utopic space)을 순간적으로 출현시키는 계기이다. 하지만 순간적 계기를 통해 드러나는 유토피 공간을 넘어 완전한 사회에 대한 정태적 묘사(description)가 모어의 유토피아 서사를 지배한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는 점령운동 찬반론자들이 공유했던 해석이다. 그러나 미완의 결말은 작품에 시간적 차원을 불어넣는다. 토론 형식은 시간 속에 전개되는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사라 호건이 적절히 지적하듯이, 바로 이 미래로 열린 역동성이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를 텍스트 바깥에, 언제나 연기되는 미래에 위치시킨다.” “모어의 책은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재현을 경유하는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전해준다.”²⁶⁾ 결국 우리가 유토피아에 접근하려면 현실과 급진적으로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과 비판적으로 대결하는 과정을 거치야 한다.

반유토피아주의와 반공산주의가 일종의 지적 유행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에 모어의 『유토피아』를 다시 읽는 것은 역사의 지층에 묻혀있던 이 꿈을 불러내 비판적 대화를 재개하는 일이다. 2011년 점령운동 활동가들 사이에

26) Sarah Hogan, “What More Means Now: Utopia, Occupy, and the Commons,” *Upstart: A Journal of English Renaissance Studies* 2013. 9.2. p.8.

일어난 『유토피아』다시 읽기 현상은 유토피아적 꿈의 소환과 그 해석과정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제 잠복기에 접어든 점령운동의 부활을 준비하려면 과거 유토피아 전통을 새롭게 읽어내고 이를 우리 시대의 맥락 속에서 재발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점령운동은 모어의 텍스트에 포함된 두 보수적 관념, 즉 급진적 사회변화는 위로부터 시작되며, “이익의 희망”에 기초한 경제체제가 풍요와 안정을 보장해준다는 관념(작중 인물 모어가 공감하는 입장)에 비판적 메시지를 보냈다. 히슬로다에우스의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끌어내 이를 지속가능한 대안사회의 비전으로 재구축하는 일, 이것이 21세기 독자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에드워드 W. 사이드, 『프로이트와 유대인 문제』, 주은우 역, 창비, 2005.
-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주경철 역, 을유문화사, 2007.
- Claeys, Gregory,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Utopian Literature*. New York, 2010.
- Goodwin, Michael, “Lord of Flies in Zuccotti Park.” *The New York Post*. NYP Holdings, 20 Oct. 2011. Web. 4 Feb. 2012.
- Greenblatt, Stephen, *Renaissance Self-Fashion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Hogan, Sarah, “What More Means Now: Utopia, Occupy, and the Commons,” *Upstart*, 2013. 9
- Jacoby, Russell. *Picture Imperfect: Utopian Thought for an Anti-Utopian Age*. New York: Columbia UP, 2005.
- Jameson, Fredric, “Of Islands and Trenches: Neutralization and the Production of Utopian Discourse.” *Diacritics* 7.2(1977).
- _____, *The Political Unconscious*. Ithaca: Cornell UP, 1981.

- _____, "The Politics of Utopia," *New Left Review* 25(Jan/Feb, 2004).
- _____, *Archa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s*.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5.
- Kendrick, Christopher, "More's Utopia and Uneven Development," *boundary* 2 13.2 (1985).
- Knapp, Jeffrey, *An Empire Nowhere: England, America, and Literature from Utopia to The Tempes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 Marin, Louis, "Frontiers of Utopia: Past and Present," *Critical Inquiry* 19.3 (Spring 1993).
- _____, *Utopias: Spacial Play*. Tr. Robert A. Vollrath Atlantic Highlands: Humanities, 1984.
- Marcuse, Herbert, "The End of Utopia," *Five Lectures*. Beacon Press, 1970.
- More, Thomas, *Utopia*. Tr. & Ed. Robert M. Adams. New York& London: W. W. Norton Company, 1992.
- Moylan, Tom, *Demand the Impossible: Science Fiction and the Utopian Imagination*. New York: Methuen, 1986.
- _____, *Scraps of Untainted Sky: Science Fiction, Utopia, and Dystopia*. Boulder: Westview, 2000.
- Sage, Carolyn, "Organizing Thought 11: Join Us, the Bottom-lining Idealists!!" *Labonneviveuse*, Wordpress, 28 Nov. 2011. Web.7 2012.
- Survin, Darko, "Defining the Literary Genre of Utopia: Some Historical Semantics, Some Genealogy, a Proposal and a Plea,"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6. 2. Fall 1973,
- Wallace Henley, "Occupy Wall Street, Idealism, and Original Sin." *The Christian Post*. The Christian Post, Inc., 8 Nov. 2011. Web. 5 Feb. 2012.
- Wegner, E. Philip, *Imaginary Communities: Utopia, the Nation, and the Spacial Histories of Modern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Whittington, Mark, "Occupy Wall Street Shows Why Utopias Always Fail." *Yahoo News*, 22 Oct. 2011. Web. 4 Feb. 2012.

❖ ABSTRACT

A Dream of Communal Society for Parts Without Parts:
On Thomas More's *Utopia*

Lee, Myung-Ho

This essay attempts a contrapuntal reading of Thomas More's *Utopia*. Contrapuntal reading, proposed by Edward Said, attempts to make a text speak across temporal, cultural, and ideological boundaries to a topic of present. I examine two opposite readings of *Utopia* around 2011 by both pro- and anti- Occupy Wall Street positions. On the one hand, the opponents of Occupy find its limits as a utopian social movement echoing in the fictional character of Hythrodaeus and the alternative society verbally sketched by him in Book Two of *Utopia*. On the other, Occupy's advocates read More's text as embodying its radical possibility. However, each shares the tendency to denounce Book Two, praising Book One in which Hythrodaeus vehemently criticizes England; they read Hythrodaeus not as an utopian idealist but as a social critic. The Occupy, as a result, is seen here as having an ambivalent relationship to utopianism. I reinterpret the radical possibilities of Book Two criticized by both pro- and anti-Occupy invocations of *Utopia*. Book Two provides a utopian space in which the existing social contradictions are cancelled, revealing the limits of the three partial utopias proposed at the end of Book One. Following Louis Marin's argument, I argue, the "utopic" space does not lie in the so-called ideal society described in the text but in th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text's description(discourse) and topography(map). In Book Two the existence of a king is described, yet his space is not found in the topography of utopia; likewise market is described as existing at the center of a city, yet its space is not found either. These inconsistencies create a neutral space in which the ideological contradictions of the text are cancelled, and the space opens up the possibility of communal society beyond modern sovereign power and capitalism I argue this utopian dream needs to be summoned once again in our time as a compelling alternative to the corporate, capitalist order.

Key Words

utopia, Thomas More, Occupy Movement, neutralizaion, communism, parts without parts

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05일